

|     |       |   |                     |
|-----|-------|---|---------------------|
| 1주차 | 일시    | 11월 11일 11:00~12:00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3F-1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2211079 김래은   | O                   |
|     |       | 2211083 주성연   | O                   |
|     |       | 2213050 김진주   | O                   |
|     |       | 2031351 김희진   | X                   |
|     | 진도    | 도서명: 혼모노(성해나)   | 진도페이지: P. 8 ~ P. 66 |
|     | 토론 내용 | <div data-bbox="560 584 1422 987" data-label="Image"> </div> <p>[좌측부터 주성연, 김래은, 김진주]</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b>토론내용 작성</b></p> <p>  감상  </p> <p>● 김희진</p> <p>우선 첫장의 제목인 길티의 뜻을 찾아봤다. 길티 플레저: 영어 길티(guilty)와 플레저 (pleasure)를 합성한 신조어이며, 어떤 일을 할 때 죄책감, 죄의식을 느끼지만 동시에 엄청난 쾌락을 만끽하는 심리를 말한다. 1장을 가장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은 주인공 '나'의 이야기를 쭉 늘어 쓴 건가 싶었는데 점점 읽다 보니 조금 답답하고 불편한 느낌을 받았다. 주인공 '나'는 김곤이라는 감독에 대해 순수한 동경과 감동을 가진 인물인 거 같았는데 팬덤 속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대상에 대한 단면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분위기에 동화가 되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느껴졌다. 또한 팬덤 속에서도 총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곤 감독을 격렬하게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영의 말처럼 그들은 이면에 다른 의도가 있었고 오영 또한 그들을 좋게 바라보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는 모습을 보며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치앙마이에서 경험했던 자이언트 호랑이 일화에서도 처음엔 주인공 '나'는 유독 강한 악취를 느낀다. 뿐만 아니라 송곳니와 발톱빠진 호랑이에 선뜻 다가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나 계속해서 그 환경에 있다보니 어느덧 괜찮아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잘못된 상황을 마주하지만 이것에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그 불편함과 악취는 사라지고 무뎌지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다.</p> <p>● 김래은</p> <p>첫 장을 읽었을 때는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 회피하는 주인공의 행동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국 나 역시 주인공인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p> |                     |

|                |                  |   |
|----------------|------------------|---|
| <div>1주차</div> | <div>토론 내용</div> | <p>비슷한 경험을 나도 한 적이 있다. 좋아하던 연예인이 논란에 휩싸였을 때, 확실한 증거나 사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여전히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 연예인이라는 ‘실체’인지, 아니면 그가 만들어낸 ‘이미지’인지조차 스스로 분간하기 어려웠고, 결국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머리로 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도, 마음은 그 인지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있다. 인간의 이런 모순적인 면이 입체적이지만, 책을 읽는 내내 불편함과 언짢음을 느끼게 했다. 그런데 이 또한 내가 제 3자이기때문에 느끼는 감정일지도 모른다. 막상 내가 앞뒤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과연 나는 스스로를 불편하게 여길까? 아니면 합리화를 통해 외면하고 넘어갈까?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랐다.</p> <p>● 주성연</p> <p>1장을 읽으면서 ‘길티클럽’의 내용보다는 ‘호랑이 만지기’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한 것 같다. 나는 주인공처럼 좋아하는 유명인이 없다보니 더 호랑이 쪽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동물원에서의 호랑이가 떠오르기도 했다. 책 속에서 호랑이를 손으로 만진다는 것이 어찌면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로 주인공이 호랑이를 만지는 손길에는 호기심과 욕망이 느껴지지만 조심스러움 또한 함께 묻어나온다. 호랑이는 단순하게 동물로 묘사되는 것이 아닌 좋아하는 대상이 가진 매력과 결함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긴장과 윤리가 함께 상징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읽을수록 좋아하는 것과 감당할 수 있는 것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것은 늘 신기하고 끌리지만 동시에 그것이 가진 위험이나 결함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어느정도 체감되었다.</p> <p>  토론   1장. 길티클럽 : 호랑이 만지기</p> <p>● 주제1 :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상의 결함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p> <p>-김래은: 사회적 물의 및 범법행위를 제외한 결함에 대해서는 보듬을 수 있다.</p> <p>- 김희진: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당하거나 합리화시킬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개인의 의지없이 갖게 된 결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p> <p>- 주성연 : 결함을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결함이 나 혹은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면 반드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아하는 대상의 단점이나 결함이 나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어느정도 감당 가능하지만, 그 결함이 나를 위협하거나 감당 불가하다면 철저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좋아하는 대상의 결함도 나 자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다.</p> <p>● 주제2 : 쾌락과 윤리가 충돌할 때, 나는 무엇을 우선하는가?</p> <p>- 주성연 : 쾌락은 강렬하지만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배운 윤리적인 판단과 자기보호가 그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한다. 나는 순간적 즐거움 보다는 책임감과 안전을 우선한다. 그럼에도 이것이 결코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도 쾌락이 윤리적 한계를 넘어가면 그것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p> |
|----------------|------------------|---|

|     |       |  |
|-----|-------|--|
| 1주차 | 토론 내용 | <p>아무리 강렬하고 즐거운 순간이라도 지켜야 할 선과 기준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p> <p>- 김래은 : 윤리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대부분의 행동은 쾌락을 쫓는 것 같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으로서는 나의 모습을 보며 입체적이라고 생각한다. 경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길거리에 떠돌이 동물을 실종신고 하면서, 이 행위 또한 인간의 윤리의 틀로 동물을 가두는 것이 아닐까.</p> <p>- 김희진: 보통 쾌락을 추구하는 편인 것 같다. 내가 하는 선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윤리적인 것보다 한번 뿐인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로 쾌락을 더 우선시하는 것 같다.</p> <p>- 김진주 : 반려동물의 보호자로서 반려동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쾌락을 추구한다고 생각한다.</p> |
|-----|-------|--|

|     |       |   |                       |
|-----|-------|---|-----------------------|
| 2주차 | 일시    | 11 월 18일 11:00~12:00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3F-1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2211079 김래은   | O                     |
|     |       | 2211083 주성연   | O                     |
|     |       | 2213050 김진주   | X                     |
|     |       | 2031351 김희진   | O                     |
|     | 진도    | 도서명: 혼모노 (성해나)  | 진도페이지: P. 68 ~ P. 154 |
|     | 토론 내용 | <div data-bbox="526 551 1457 1075"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786 1095 1200 1131" data-label="Caption"> <p>[좌측부터 주성연, 김래은, 김희진]</p> </div>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b>토론내용 작성</b></p> <p>  감상  </p> <p>● 김래은</p> <p>: 2장 ‘스무드’와 3장 ‘혼모노’를 읽었을 때, 2장인 스무드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담겨있어서 내 생각을 줄거리에 담기도 애매하고, 말하기도 애매했다. 내가 직접 겪기도 애매한 상황이라 그런지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은 되지만 약간 지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 지루하다는 감상을 느끼고 3장 ‘혼모노’를 읽었다. 3장은 무당에 관한 이야기이다. 처음 이 책을 접한 이유가 박정민 배우의 “이 소설집은 몰입의 파티다. 영화로 만들고 싶은 작품들로 가득하다.” 감상이 이 책을 읽고 싶게 만들었고,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 사실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영화로 만들고 싶은 작품까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3장을 읽은 후 영화로 제작한다면 정말 재밌을 거 같다고 느꼈다. 무당과 관련된 세계는 모르는게 많기 때문에 흥미롭지만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구체화시켜서 영화화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읽었던 1장, 2장, 3장 중에서 3장이 제일 흥미를 돋구었다.</p> <p>● 김희진</p> <p>처음에는 ‘길티클럽’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일화가 펼쳐져 잠시 어리둥절했다. 이야기의 도입이 배경 설명 없어서 ‘나’라는 인물을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제목 ‘스무드’가 ‘매끄러움’을 뜻한다지만 왜 이 작품의 이름이 되었는지는 여전히 궁금하다. 제프의 구 모형은 의도나 설명 없이 그</p> |                       |

|            |              |   |
|------------|--------------|---|
| <p>2주차</p> | <p>토론 내용</p> | <p>저 감상하는 작품이고, 보는 사람이 느낀 것이 곧 그 자체의 의미가 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듀이는 한국에서 고급스럽고 정교한 대접을 받지만 음식이나 문화는 그와 잘 맞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날 우연히 마주친 태극기 집회에서 노인들의 거칠지만 솔직한 환대를 경험하며 의외로 좋은 하루를 보낸다. 단편적인 순간으로 한 나라를 인식하게 되는 이 과정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스무드’-즉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각과 연결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p> <p>그리고 다음 챕터인 혼모노는 무당의 세계에는 일절 관심이 없어서 읽으면서 신기하기도 했고 무당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점지를 받아 그 섭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도 신기했다. 신애기라는 새롭고 어린 무당이 30년된 주인공의 할멈의 선택을 받게 되면서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며 결국 주인공은 자신이 할멈이 없이도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작두를 타고 굿을 두는 장면이 너무 생생해서 충격적이었다. 153쪽에서 “삼십년 박수 인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던가 누구를 위해 살을 풀고 명을 비는 것도 이제는 중요치 않다 명예도, 젊음도, 시기도, 반목도, 진짜와 가짜까지도. 가벼워진다. 모든 것에서 놓여나듯. 이제야 진짜 가짜가 된 듯”이라는 구절과 마지막 구절인 ”하기야 존나 흉내만 내는 놈이 뭘 알겠냐만 ㅋㅋ“이라는 신애기가 했던 대사를 그대로 말하는 장면이 기이했다. 자신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는 모든 것을 다 놓은채 그것 하나에만 매몰돼있는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복잡하기도 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p> <p>● 주성연</p> <p>스무드는 한국계 미국인 듀이가 한국에 처음오면서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겉모습은 한국인이지만 그 외에 모든 것이 외국인인 듀이가 보는 새로운 시선이 새롭게 다가왔다. 책 제목의 뜻처럼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보여주는 대목은 소속감인 것 같았다. 작가는 듀이가 겪는 소속감이 진짜일지 가짜일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소속감에 따른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챕터 였던 것 같다. 다음 챕터인 혼모노는 내가 느끼기에 스무드보다 더 몰입해서 읽은 챕터인 것 같다. 신을 잃은 박수무당과 박수무당이 잃은 신을 받은 신애기가 대립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마지막 굿을 하는 장면에서 과연 누가 진짜 신을 받고 굿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남기고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소재때문인지 내용의 구성 때문인지 정말 몰입해서 읽게되는 챕터였다. 특히 ‘바나나가 안들어간 바나나맛 우유’라는 것이 진짜와 가짜의 경계에서 대비되어 보이는 요소였던 것 같다.</p> <p>  토론  </p> <p>● 주제 1 :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하는가?</p> <p>- 김희진: 진짜와 가짜, 옳고, 그름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때가 있고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 <p>- 주성연: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사라지면 진짜가 억울하지 않을까?<br/>진짜가 진짜인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가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p> <p>- 교수님: 요즘 유튜브에 있는 부캐들 또한 넓게 보면 가짜지만 진짜들의 페르소나일 수 있기에 가짜와 진짜가 좋고 나쁘다고 정의 내리기가 애매모호하다.</p> <p>- 김래은: 사실 회피형인 편이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마음속에 묻고 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행동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라 생각하는데 이 책과 요즘 들어서 회피하는 성향을 고쳐야겠다고 느꼈다.</p> |
|------------|--------------|---|

|     |       |  |
|-----|-------|--|
| 2주차 | 토론 내용 | <p>● 주제 2 : 마지막 문장은 누가 말했을까?</p> <p>- 김희진: 진짜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문수’가 ‘신애기’한테 보란 듯이 내가 진짜라고 말하는 느낌을 받았다.</p> <p>- 김래은: 처음엔 마지막 문장이 이해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쓴 블로그를 찾아보았다. 블로그 내용은 ‘문수’가 ‘신애기’한테 말했다고 설명했는데, 나도 이렇게 생각한다.</p> <p>- 주성연: ‘문수’가 ‘신애기’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br/>책 초반 내용에 ‘신애기’가 ‘문수’에게 동일한 말을 한다. 그것에 대해 신애기에게 다시 말해주는게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어쩌면 말하는 대상은 모두 ‘신’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신이 옮겨다니며 똑같은 문체로 똑같은 말을 한것인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도 있을 것 같다.</p> <p>● 주제 3 : 이 책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p> <p>- 김희진: 진짜와 가짜의 경계는 외부에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주체의 시각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 같다.</p> <p>- 주성연: 결국 진짜와 가짜는 한곳 차이라는 점과 그 온전한 사실은 각 객체만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다.</p> <p>- 김래은: 인간은 언제나 가짜와 진짜 이 두 모습이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가짜와 진짜가 공존하는 인간이 “과연 가짜와 진짜를 또렷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가?”가 전달하고자 했던 말이 아닐까 싶다.</p> |
|-----|-------|--|

|     |       |  |                        |
|-----|-------|--|------------------------|
| 3주차 | 일시    | 11 월 25 일 줌 미팅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2211079 김래은  | O                      |
|     |       | 2211083 주성연  | O                      |
|     |       | 2213050 김진주  | X                      |
|     |       | 2031351 김희진  | O                      |
|     | 진도    | 도서명: 혼모노 (성해나)   | 진도페이지: P. 156 ~ P. 240 |
|     | 토론 내용 | <div data-bbox="526 551 1458 1075"> </div> <p>[좌측부터 김희진, 주성연, 김래은]</p> <p>※ 개인별 언급사항이 드러나도록 기술</p> <p><b>토론내용 작성</b></p> <p>  감상  </p> <p>● 김희진</p> <p>나는 『구의 집』을 읽으며 진짜와 가짜의 경계만을 좇았던 점이 아쉬웠다. 작품을 통해 떠오른 질문은 여재화가 구보승을 끄찍한 존재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구보승을 자신이 보고 싶은 방향으로 왜곡한 것인지였다. 나는 후자에 가깝다고 느꼈다. 본래 구보승은 인간과 공간을 우선하는 설계자였는데, 여재화는 이를 야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했음지도 모른다. 또한 고문실을 만들며 죄책감을 느끼던 여재화와 달리, 구보승은 늘 같은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을 ‘내가 보고 싶은 방식’으로 규정해버리는 위험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p> <p>『우호적 감정』에서는 직원들에게 외면받던 고령자 진을 알렉스가 돕지만, 결국 진이 회사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드러난다. 상여금조차 시니어 직원 수잔보다 많았고, 평등한 회사 분위기 속에서 다시 직급을 구분하며 권도우에게 회사를 설명하는 모습이 의아했다. 인상 깊었던 구절은 마지막 부분인 “나는 뜨거운 덤섬을 차마 삼키지도 뱉지도 못한 채, 그대로 머금고 있었다.”이다. 이 장면은 224쪽에서 진이 했던 행동이다. 그래서 내가 삼키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이 덤섬의 육즙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며 결국 꿀꺽 삼켰다는 장면이 수잔이 한창 상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을 때 등장한 한 것으로 봤을 때, 진이 삼킨 것은 덤섬이지만 그 덤섬이 수잔의 자리를 말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p> |                        |



|                |                  |  |
|----------------|------------------|--|
| <div>3주차</div> | <div>토론 내용</div> | <div><div>● 김래은</div><p>「구의 집」을 읽은 뒤 실제 사례를 참고한 작품인지 궁금해 네이버 블로그들을 찾아보았다. 여러 블로그의 내용과 작가가 저술한 책의 정보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보고, 이 소설이 현실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그 때문에 ‘구보승’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상상이 살짝 섬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의 강한 직업의식과 건축가로서의 윤리적 고민이 인상 깊게 다가왔다.</p><p>하지만 내가 만약 구보승의 입장이었다면, 스승인 여재화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고문과 관련된 건물들을 설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무리 커리어가 중요하더라도 스승을 도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스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거리를 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에서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양심과 생계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을 것 같고, 건축이라는 직업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에 대해 다시 고민했을 것이다.</p><p>한편, 『우호적 감정』은 『구의 집』과 달리 특별한 사건보다는 일상적이고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한 상황을 다루고 있어서 스토리적으로 큰 흥미를 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히려 그 현실성이 작품 속 인물의 감정과 처지에 몰입하게 만들었다. 나 역시 회사 생활을 떠올리며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고, 현실 속 인간관계와 감정의 미묘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다.</p><div>● 주성연</div><p>&lt;구의 집&gt;은 고문실을 설계한 건축가 여재승과 구보승에 대한 이야기이다. 스승인 여재화가 제자인 구보승에게 고문실 설계를 함께하자고 했을 때 망설이면서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계속된 설득 끝에 여재승과 구보승은 함께 고문실을 설계한다. 인간을 위한 건축을 이야기했던 구보승이 이러한 선택을 한것도 너무나 놀라웠는데 여재화보다 더욱 치밀하고 악하게 설계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과연 구보승은 무슨 설계를 하고 싶었던 것일지, 이것이 진짜 구보승의 본 모습에서 나오는 설계였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자존심과 모순이 무섭게 느껴졌다.</p><p>&lt;우호적 감정&gt;은 스타트업 팀원들 사이에서의 위태로운 관계를 보여준다. 이 챕터를 읽으면서 나였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곧 취업을 하게될지 모르는데 나에게도 이런 사건이 온다면 과연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중립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그들의 고립과 입장 차이를 느끼면서 깊게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p><div>  토론  </div><div>● 주제 1: 제목을 왜 우호적 감정으로 했을까?</div><div>- 김희진: 알렉스가 진에게 느낀 감정이 우호적 감정이었고, 그 감정이 이야기의 시발점이 되었고 우호적 감정이 결말엔 왜곡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어, 작가가 이렇게 설정한 것 같다.</div><div>- 김래은: 책 마지막 부분을 보면 회식 자리에서 서로 건배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나타낸 것 같아서 우호적인 사이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찢어뜯은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생각했고, 이를 반어법으로 표현하기 위해 우호적 감정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div></div> |
|----------------|------------------|--|



|     |       |   |
|-----|-------|---|
| 3주차 | 토론 내용 | <p>- 주성연: 우호적이라는 것이 꼭 방패라고 느껴졌다. 서로 좋은게 좋은 것이라며 침묵을 지키는 것이 ‘우호적’이라는 말과 함께 방패로 작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서로의 관계에서 표면에 보이는 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것 또한 ‘우호적’이라는 단어가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다.</p> <p>● 주제 2: 마지막 구절인 “남자는 다시 갈월동을 천천히 누빈다. 간밤에 좋은 꿈을 꾸었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즉석복권을 한 장 사야겠다고 생각하며”가 무슨 의미일까?</p> <p>- 김희진: 구보승이 즉석복권을 사려 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은 그가 누군가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진짜로 살아가는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p> <p>- 김래은: 「구의 집」의 마지막 문장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복권에 비유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복권이 쉽게 당첨되지 않듯, 학부생 시절에 건물을 설계하고 그 건물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일도 매우 드문 일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구보승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특별한 과거를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p> <p>- 주성연: 결국 끝난 사건에 대해 더 이상의 미련과 죄책감이 남아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복권을 산다는 것은 복권 당첨일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뜻과 같다.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p> <p>● 주제 3: 『우호적 감정』에 나온 것처럼 회사에서 상여금이 공개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p> <p>- 김희진: 대기업이라면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버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에서 노력하는 것이 다 부질없게 느껴지고 보람이 없다는 생각이 지속된다면 나도 수진처럼 퇴사를 결정할 것 같다.</p> <p>- 김래은: 대기업의 경우 복지와 급여로 인해 현실적으로 쉽게 퇴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나 대기업이 아닌 조직이라면, 내 능력과 동료의 역량을 비교해 내가 더 뛰어나다고 판단되는데도 능력이 부족한 동료가 더 높은 상여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나는 조용히 이직을 준비할 것 같다.</p> <p>- 주성연: 만약 상여금 공개로 내가 나를 점점 잃게 된다면,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이 생기기 전에 회사를 그만둘 것 같다.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끝은 결국 나를 갇아 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땐 극단적일 수 있지만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 |
|-----|-------|---|

|     |       |  |                        |
|-----|-------|--|------------------------|
| 4주차 | 일시    | 12 월 2 일 11:00~12:00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3F-2   |                        |
|     | 참여 학생 | 클럽원 정보   | 참석 여부                  |
|     |       | 2211079 김래은  | O                      |
|     |       | 2211083 주성연  | O                      |
|     |       | 2213050 김진주  | X                      |
|     |       | 2031351 김희진  | O                      |
|     | 진도    | 도서명: 혼모노 (성해나)   | 진도페이지: P. 242 ~ P. 334 |
|     | 토론 내용 | <div data-bbox="526 551 1457 1075" data-label="Image"> </div> <p>[좌측부터 김래은, 김희진, 주성연]</p> <p>  감상  </p> <p>● 김희진</p> <p>잉태기는 초반부터 거의 끝나기 전까지 불편한 감정이 들었다. 서진이의 할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 까지 아이의 엄마보다 더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게 하려는 모습이 답답했다. 그리고 자꾸만 시아버지랑 주인공 ‘나’의 생각이 달라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도 없을 뿐더러 가끔은 서진이가 주인공에게 할아버지 편을 들 때 주인공이 얼마나 슬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점점 이야기가 끝으로 향할수록 자기주장이 강하고 막무가내라고 생각했던 시아버지와 주인공의 모습이 비슷하게 느껴졌고 마지막에 공항에서 서진이의 미국행을 두고 서진이의 양수가 터졌을 때 주인공이 물티슈로 바닥을 닦으며 조금만 버티면 된다며 어떻게든 원정출산을 성공시키려는 모습이 너무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주인공 또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갈망을 서진이를 통해 이루려는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흔히 보이는 모습같아서 안타깝기도 했다. 겉으로 보았을 때 경제적인 걱정없이 살고, 미국도 갈 수 있는 서진이가 부럽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서진이의 삶도 꽤나 힘들 거 같다.</p> <p>메탈은 챕터 중에서 가장 우리의 삶과 밀접한 이야기라고 느껴졌다. 아직은 조현,시우,우림처럼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길 나이가 되진 않았지만 나 또한 중,고등학교 때 가깝다고 느껴졌던 친구들과도 많이 멀어지고 한 때 둘도 없던 친구였던 사이도 드문해지는 것을 느껴서 많이 공감이 됐던 거 같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친구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다보니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와 관심사, 중요도가 바뀐 건데 여전히 메탈에 대한 열망이 있던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고 복잡했을 거 같았을 거 같아 슬프기도 했다.</p> |                        |

|     |       |  |
|-----|-------|--|
| 4주차 | 토론 내용 | <p>● 김래은</p> <p>「잉태기」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서진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무용 유학 까지 다녀온 환경이 부러웠다. 나도 한때 춤과 관련된 직업을 꿈꿨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이루지 못했기에, 서진이 가진 조건들이 더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진이 할아버지와 엄마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풍족함이 오히려 서진을 독립적으로 자라지 못하게 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 작품을 통해 환경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p> <p>「메탈」을 읽으면서는 묘한 헛헛함과 공허함이 남았다. 언젠가는 나의 인간관계도 정리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내 곁에 과연 몇 명이 남을까 하는 질문이 떠올랐다. 그 때문에 지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소설 속 우림이가 느꼈을 외로움도 크게 와닿았다. 조현과 시우처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성장하는 친구들과 달리, 우림이는 과거에 머무른 채 나아가지 못하는 외로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현대인이 흔히 느끼는 고립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 작품을 통해 관계가 조용히 멀어질 때 찾아오는 빈자리의 외로움이 공감됐다. 그리고 끝내 전화를 건 우림이의 용기를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p> <p>● 주성연</p> <p>&lt;잉태기&gt;는 이혼을 하고 임신 중인 딸 서진(복이)와 서진의 엄마, 그리고 서진의 친할아버지인 지지의 관계를 묘사한다. 가부장적인 할아버지와 대립하는 서진의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서진을 나타낸다.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대립은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드라마의 요소로 많이 이용되어서 인지 많이 어색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서진의 엄마와 할아버지가 서로 너무 닮아있어 이렇게 대립한다고 생각했다.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보단 서로가 한치에 양보없이 자신의 주장만 하다보니 결국 서진이 안좋은 결말을 맞이한다. 서진 엄마의 모성애와 사적인 경험조차 모두 통제하는 할아버지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했는지 생각이 많아졌다.</p> <p>&lt;메탈&gt;을 읽으면서 가장 집중되었던 것은 어린시절부터 함께해온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멀리 떨어질 정도로 지역을 옮긴 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된다면 나 또한 친구들과 멀어질까와 같은 생각으로 시작되어 그렇다면 멀리 이동하여 산다고 해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또한 혼자남은 우림이에게도 감정이 투영되어 안타깝게 느껴졌다. 다른 친구들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지만 우림이의 경우에는 그곳에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그 공허함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메탈을 읽으면서 나도 내 주위를 잘 둘러보고 지내야겠다고 생각했다.</p> <p>  토론  </p> <p>● 주제 1: 내가 우림이었다면 멀어진 친구들에게 다시 연락을 했을까?</p> <p>-김희진 : 연락을 했을 것 같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락을 안해서 서운한 상황보단 차라리 하고 결과는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 같고, 오랜만에 용기 내 연락을 한 뒤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 같기 때문이다.</p> <p>-김래은 : 나는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 같다. 내 연락을 반기지 않는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내 연락을 본다면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때문에 안 했을 것 같다.</p> <p>-주성연 : 그럼에도 나는 연락을 했을 것 같다. 멀어진 친구이지만 연락을 통해 다시 친해질 기회의 발판이 될 수 있고, 정말 연락을 안한다면 다시 불일이 없는 사이로 멀어지기 때문이다. 멀어진 친구이지만 이전에는 누구보다 가까웠기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
|-----|-------|--|

|     |       |  |
|-----|-------|--|
| 4주차 | 토론 내용 | <p>-교수님: 의외로 결혼할 때가 되면 부담이 될까 멀어진 사이의 지인에게 연락을 주저하게 되는데 나중에 연락을 아예 주지 않아서 서운한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다.</p> <p>● 주제 2: 내가 서진이었다면 엄마의 바람대로 미국으로 갈 것인가, 할아버지의 바람대로 한국에 남을 것인가?</p> <p>-주성연 : 서진에게 엄마와 할아버지는 둘 다 너무 소중한 존재이지만, 한번 미국에 가게 된다면 시간이 지난 이후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뜻대로 한국에 남을 것 같다. 할아버지의 연세와 건강을 보았을 때 미국으로 간다면 다시는 할아버지와 시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 <p>-김래은: 이미 양수가 터진 이후라 한국에서 출산한 후 한국에서 생활할 것 같다.</p> <p>-김희진: 양수가 터진 상황에 장기 비행은 무리일 거 같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엔 할아버지의 선택을 따르고 재산을 물려받을 것 같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주신 재산으로도 충분히 한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나중에 아이를 낳고, 미국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 때 미국으로 이민 갈 것 같다.</p> |
|-----|-------|--|

| 활동<br>후기 | No. | 클럽원 정보         | 후기 내용   |
|----------|-----|----------------|---|
|          | 1   | 2031351<br>김희진 | 박정민 배우가 극찬했던 책이라 얼마나 재미있길래 그럴까 기대하면서 봤다. 그가 추천한 대로 재미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다. 일단 이 책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각 챕터의 제목이었다. 길티클럽, 스무드, 혼모노, 우호적 감정, 잉태기 등등 처음 제목의 단어만 봤을 때 좋은 단어인 거 같기도 했고 어떤 내용일지 예상이 되지 않지만 읽고 나면 왜 이것을 제목으로 설정했는지, 그리고 그 제목이 적절한 거 같다고 납득이 되었다. 또한 어떤 챕터의 에피소드는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다룬 것이 명확한 챕터도 있었지만, 어떤 챕터는 모호한 이야기들도 있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 책을 쓴 의도나 내용 해석을 좀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이를 참고한 내 생각은 작가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는 것이 아닌, 그 경계가 모호한 만큼 그 기준이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떠한 대상을 우리의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망하고 기뻐하고 옳고 그르다고 분쟁을 하곤 한다. 모호한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다. |
|          | 2   | 2211079<br>김래은 | 「혼모노」라는 제목 자체가 먼저 눈길을 끌었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 박정민의 소개글을 읽은 뒤 꼭 한 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독서클럽을 통해 실제로 작품을 읽게 되어 더욱 즐거웠다. 각 작품마다 뚜렷한 색이 있어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았다.<br>특히 인상 깊었던 작품은 「혼모노», 「구의 집», 「잉태기», 「메탈」이었다. 「잉태기」와 「메탈」은 단편 드라마로 제작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았고, 「구의 집」과 「혼모노」는 영화화된다면 상당한 몰입감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실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감정과 상황을 다루고 있어 더욱 기억에 남았다.<br>읽다 보니까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이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고, 결국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작품들이 하나같이 독특해서 그런지 읽은 뒤에도 계속 기억에 남았다.<br>그리고 뭔가 읽는 동안 내 생각도 조금씩 바뀌고 확장되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다. 일상에서는 잘 하지 않는 고민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인상 깊었다. 아마 시간이 지나도 몇 번은 다시 떠올릴 것 같은 책이다.  |
|          | 3   | 2211083<br>주성연 | 처음에 책 제목을 봤을 때는 무슨 책일지 정말 가늠이 안되었는데, 표지를 보니 나도 언젠가 서점에서 본적이 있는 유명한 책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챕터가 나뉘어져 있었지만 장편소설인줄 알았는데 여러 단편을 묶어 편집한 것이 신기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책이다. 책을 읽는 시간보다 생각하는 시간이 더 길었을 정도로 다양한 생각을 하게되었다. 그리고 토론을 하기에 정말 적합한 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장 재미있게 읽은 챕터는 <혼모노>와 <구의집>이었는데 혼모노는 내가 새롭게 접하는 소재라서 더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의 경계에서 일반인이나 독자들은 추측만 할 뿐 진짜와 가짜는 주인공만 알 수 있는 것을 보며 정말 모호한 경계에서 우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고 있다고 느꼈다. <구의 집>의 경우에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부분이기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고문실 설계에서 인간의 악마같은 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아 섬뜩하면서 소름끼치던 기억이 계속 남는 것 같다. 종강을 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다시 생각하면서 읽고 싶은 책이었다.   |
|          | 4   | 2213050<br>김진주 | x   |